

#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만족도 '81점'

## 서울버스 만족도조사 결과 발표...역대 최고 점수 기록 시민 90% 이상 '음식물 반입금지' 차량환경개선 도움

서울시가 '2018년 시내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0.23점 오른 81.24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2018년도 서울버스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전년보다 0.22점 오른 81.24점, 마을버스는 1.25점 오른 80.94점을 기록했다. 공항버스는 86.1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년 보다 유일하게 0.14점 떨어졌다.

시내버스는 2008년도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마을 버스 역시 2013년 조사 이래 매년 상승해 지

난해 처음 80점대를 기록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항복별 만족도 중 '쾌적성'과 '편리성'에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쾌적성'은 청결상태, 안내방송, 냄새·온도 등을, '편리성'은 카드 단말기, 하차벨, 좌석 등을 평가한다. 시내버스는 쾌적성 83.07점, 편리성 83.17점을 기록했다. 마을버스는 쾌적성 82.07점, 편리성 82.04점을 받았다.

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이상은 2018년 초부터 시행된 '차내 음식물 반입금지'가 버스 이용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내버스는

91.7%, 마을버스는 93%에 달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항버스는 여전히 시내·마을 버스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적성'(91.38점)과 '안전운행·교통약자배려'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91.34점) 점수가 높았다.

다만 공항버스는 '운행 및 서비스' 부문 만족도 조사에서 시내·마을버스 대비 긴 배차간격과 비싼 요금으로 인해 유일하게 최근 4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공학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 단축,

요금인하 등 서비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2006년부터 매년 서울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도하고 있다.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별도의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준공영제 이후 지속적으로 버스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 결과, 서울버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미세먼지비상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못한다

### 조례 제정...2월 15일부터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대상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

2월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허용기준이다.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번 강화됐다. 그러나 법적 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후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와 조기폐차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년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다.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을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작업단축과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의 경쟁력, 대중교통·생활안전...이미지는 현대적

### 서울브랜드 1·SEOUL·U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과 생활 안전이 서울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뽑혔다.

서울시는 2일 서울브랜드인 1·SEOUL·U 3주년을 맞아 국내·외

5000여명(서울시민 1000명·시 온라인패널 3373명·외국인 홈페이지 방문 외국인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외국의 다른 도시

보다 서울이 가지는 경쟁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가 2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다'(221명) ▲'관광명소나 랜드마크가 많다'(66명) ▲'IT강국'(51명) 등의 순이었다. 이 질문은 자유의견으로 조사됐다.

시와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해선 '현대적이다'(53.5%), '다양하다'(47.5%), '활기차다·역동적이다'(45.3%), '안전하다'(14.4%)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인이 바라는 서울의 이미지는 '여유티다·편안하다'(22.8%), '다양하다'(12.0%), '국제적이다'(11.0%), '즐겁다·재미있다'(10.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이 여유롭고 다양하며 국제적인 도시로 비춰지기를 바랐다. 또 1·SEOUL·U에 대해 일반

시민 84.0%가 인지하고 있었다. 인지경로는 'TV, 신문, 대중매체 뉴스'(42.0%)와 '서울시 관련 행사나 홍보물'(37.9%)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브랜드 인지도는 2016년 63.0%, 2017년 66.3%, 지난해 84.0%로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기억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민들의 서울브랜드에 대한 연령대별 인지도는 20대 83.9%, 30대 83.0%, 40대 84.8%, 50대 84.3%로 집계됐다.

서울브랜드 호감도의 경우 일반 시민 70.7%, 시 온라인 패널의 66.8%, 외국인 홈페이지 방문 외국인 98.0%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서울브랜드 호감도는 2016년 52.8%, 2017년 57.1%, 지난해 70.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6.4%)보다는 여성(75.0%)에게 더 호감이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스

첫해'라며 "우리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원년'으로 정성을 모아서 새해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경기 참례와 관련, "대통령이 경제문제와 일자리에 올인하고 있다. 시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말했다. 26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 박원순 "서울 세계 최고 도시 못만들면 나는 바보"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외국도 시를 보면 우리 서울이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 정도 재정과 인재, 이런 기술로 세계 최고 도시를 못 만들면 내가 바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분청·사립소, 소방재난본부, 시의회사무처, 지방공

사·재단 간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단결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면 정말 서울시를 종합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위대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성정현 용산구청장(서울 자치구청장협의회)은 지난해 연말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분권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그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를 얘기했는데 올해는 우리들이 원하는 100% 지방자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같증이 해소되는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지역구민·미세먼지·정리정돈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